불교TV 제작협찬 활발

방송운영 후원 홍보효과 '일석이조'


◇대행스님


◇진옥스님


◇김의정씨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도 동참하고 광고효과도 기대하고….

불교TV의 인기프로그램들이 외부 단체들의 협찬으로 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나는 연꽃동산'은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이, '날마다 좋은날'의 '다도산책'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일년 제작비를 전액 협찬했다.

또 부처님 오신날 특집으로 제작됐던 '임진란의 의승수군'과 '붓다의 고향을 가다'는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스님)와 위동해운(대표 이종순)이 각각 협찬, 다큐멘터리의 질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다도산책' 등 올 4건 수주 후원금 주식전환

이같은 프로그램 협찬은 불교단체들의 주요 목적사업 캠페인 등과 부합, 좋은 불교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불자들의 기대 속에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에도 불교TV후원회에 5백여명이 회원으로 동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뜻있는 불자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TV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온 후원금을 연말에 주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모니터 '걸음마' 수준

불교방송이 최근 자체 모니터요원을 확충하는 등 모니터활동 재정비에 나서고 있어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부진했던 교계 모니터 활동이 활발하게 재진돼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

모니터는 TV,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프로그램의 홍수속에서 편견과 오해로 자칫 왜곡될 수 있는 불교관련 방송들을 비판 감시하고 걸러내는 비평적 역할을 한다.


◇보리방송모니터회 회원들이 모니터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있다.

교계 활동 30여명 고작 광고편중·전문성 부족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은 보리방송모니터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모니터회, 불교TV와 불교방송의 자체 모니터팀등 전체를 통틀어 30명에 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 3월에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발족한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방송상의 불교왜곡과 권과보도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월 2~3회에 걸친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를 운영해 왔다. 그나마 체계적인 모니터활동으로 실정이 나은 편인 보리방송모니터회도 실무요원은 6명뿐이다. 서울 외에는 강원지부만이 개설돼 있어 지역방송에 대한 모니터는 전무한 상태며 30개가 넘는 공중파와 케이블TV를 모두 모니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모니터회(회장 배연파)는 현재 3명의 모니터요원이 환경과 광고분야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교TV 모니터팀은 10명의 모니터요원이 자체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교방송도 그동안 5명내외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다가 최근 보강을 위해 방송 모니터요원을 확충했다. 가장 활발해야 할 두 팀 모두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계 모니터 활동은 타종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육성해 내고 있는 모니터요원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뒤떨어진다. 타종교의 경우 종교적인 부분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운동으로까지 모니터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노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 회장은 "예전에 비해 불교를 다루는 각 방송사의 입장은 조심스러워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종교편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사찰 청년회를 위주로 한 모니터팀 구성도 바람직한 방편이라고 제시했다.

강지연 기지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조건없는 삶 ②

〈특별상〉

얼마나 급경사인지 브레이크를 밟고서면 그대로 줄줄 미끄러지는 길을 더듬더듬 내려오다 S자 코스 입구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밀양 택시 표시가 붙은 차 한대가 길을 막아 서 있고 기사와 승객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사연인즉 암자 노보살님께 약초를 가지러가는 승객이 사자평에 가자니까 택시기사는 사전지식없이 오게 되었고, 무리하게 여기까지 와서는 택시 뒷바퀴가 빠져 저 아래 바위 밑으로 굴렀다는 것이다. 비커갈 수도 없는 낭떠러지 입구에 택시가 바퀴를 잃어버린 채 길을 막고 주저앉아 있었다.

택시 승객이었던 양복차림의 중년신사가 오늘까지 부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나더러 사자암까지 태워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중년신사의 사연이 구구절절 애처로웠다.

여름 청송 주왕산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여학생 두명을 살려내고 익사한 모 대학 한의학과 졸업반 학생의 부친이었다. 봄저 누운 아내의 약을 구하러 사자암 노보살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다 싶었다. 엉금엉금 기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그 곳을 가자니….

덜컹덜컹 또다시 고사리 분교를 통과하여 사자암을 가는 길에 접어드니 차 불빛에 사람이 또 나타났다. 1시간여 전에 만났던 노보살님이었다.

저분이구나 싶어 차를 세우니 대뜸 삿대질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웬 고집이 그리 세나. 기다리라면 기다릴 것이지 왜 나이 든 사람 말을 경솔하게 들어. 부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죽도록 그냥 둘 것 같은가"라며 고함을 치셨다.

나는 말문이 막혀 소눈처럼 눈만 껌벅이고 있는데, 노보살님이 챕싸게 차에 오르시더니 이제 가자는 것이다. 내 등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 내렸다.

암자에 도착해 노보살에게 이끌려 요사채에 들어가 차 한잔을 마셨다. 한동안 침묵하다 보살은 인연법을 이야기하며 내가 40년째 수행정진하며 기다리던 당신의 인연이라는 것이다. 한편의 동화같은 사연이 시발점이 되어 불법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 후 3년을 여기저기 사찰에 다니며 불교와의 인연을 더듬었다. 암자에 기거할 때는 새벽예불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벽 3시반에 일어나 얼음물에 세면하고 법당에 앉아 스님의 독경소리와 목탁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길길이 날뛰던 내 영혼은 새벽예불 소리에 묻혀 점점 차분해졌다. 과거가 되살아날 때는 무릎이 저려오도록 108배를 수없이 했다.

92년 2월, 하동 쌍계사를 시작으로 속초에 있는 곤도까지 보름동안 전국 명산 대찰을 돌며 여행을 했다. 쌍계사 동화사 파계사 법주사 등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는 동안 40번째 생일을 맞았다. 저녁 8시경 숙소에 들어 잠시 누워 쉬고 있는데 이리 누워도 편하지 않고 저리 누워도 편치가 않았다. 의식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몸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찌릿한 느낌과 같은 상황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갔다. 한순간 환한 밝음 속에 은백색의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아 이것이 극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새도록 전율하느라 흘린 땀을 씻기 위해 사워를 하러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화들짝 놀라 뛰쳐 나왔다. 물위에 불꽃이 일렁이면서 극과 극이 충돌하는 것 아닌가. 타 죽을 것만 같아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부터 황소울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 핏물을 쏟아냈다. 담요는 피와 고름덩이에 짓이겨져 범벅이 되었다. 전생의 업이 쌓이고 찌들어 축적된 화기덩어리였다. 그 후 난 더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운명이 바뀌어 새 생명을 얻은듯 했다.

하루하루 새벽의 도량송을 듣는 청량함이 감도는 듯 내 인생은 그렇게 바뀌었다.

장명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생의 업 덩어리를 눈물·핏물로 쏟아내니 새벽 도량송처럼 청량한…


그림 · 이준석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⑱

♦ Having abandoned the objects of the five sense, the beautiful, the charming, and gone out from thy house with faith, do thou put an end ot pain.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오욕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집을 떠나 괴로움을 없애는 사람이 되라.

♦ Cultivate virtuous friends and a distant dwelling-place, secluded and quiet; be moderate in food.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인가를 떠나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여라. 그리고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 Robes alms, requisites, a dwelling-place,-do not thirst after these, that thou mayest not go back to the world again.

옷과 얻은 음식과 병자를 위한 물건과 거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다시는 세속에 돌아가지 말라.

♦ Be subdued accoriding to the precepts, and as to the five senses, be attentive as regards thy body, and be full of disgust.

계율을 지키고 다섯 감관을 지켜 네 육신을 살펴라. 참으로 세속을 지겹게 생각하라.

♦ Avcid signs, what is pleasant and is accompanied with passion, turn thy mind undisturbed and well composed to what is not pleasant.

애욕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 Cherish what is signless, leave the inclination for pride; then by sacrificing thy pride thou shalt wander calm.

마음에 자취를 두지 말라. 마음에 도사린 오만을 버려라. 오만을 없앤 너는 마음 편안한 나날을 보내리라.

*secluded(a) 외딴, 세상에서 격리된
*alms(n) 구호품
*requisites(a) 필수품
*subdued(a) 억제된
*precept(n) 계율 규칙
*compose(v) 〈마음을〉 가라앉히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규격(폭×높이) \ 형태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